

2020 / 08 / 26 까지 정오 사항.

235p 9번의 1번선지 : ㉠ -> ㉡

158p 4번의 3번 선지 : 높혀서 -> 높여서

158p 5번의 3번 선지 해설 보충 : 연습 장소를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맞습니다만, '이동'이라는 의미가 <기존의 연습 장소에서, 연습 장소를 무대로 바꾸는 것>에 대한 것을 '이동'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단순히 <현재 상황에서 이동할 것인지, 말 것인지>에 대한 서술일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틀렸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, 저랑 해설이 다르다고 해서 학습에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
중요한 것은 [A]에서 연습 시간 '축소'의 문제가 '확실하게' 틀렸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. 토론·토의·협상에서 쟁점을 정확히 잡아내는 것은 중요하니까요.

174p 3번 문제와 해설 순서 다름 : 2번 해설 -> 5번, 4번 해설 -> 2번, 5번 해설 -> 4번

-----

132p 8번 해설 오타 : 면접의 목적 -> 작문의 목적

167p 6번의 3번 선지 밑줄 -> 2번 선지로 (답이 2번입니다. 밑줄을 잘못 체크했네요.)

해설 보충 : 2016 / 06 에서도 '대내'와 '대외'만 나뉘어서 나왔듯이 각각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'학생회'와 '학생'만 나온 것이죠.

249p 4번의 4번 선지 해설 정정 :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는 찬성 측의 의견은 '부분 동의'하였지만,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답합의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. 따라서 반대 측 반론 때 찬성 측 주장에 반박했다는 선지의 진술은 맞습니다.

다만, 기존 해설의 내용은 반대 측의 반론이 아닌 반대 측 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. 위와 같은 해설로 바꾸어줘야 합니다.

-----

141p 8번 3번 선지 : <잘 알 경우 - 잘 모를 경우>로 대조가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.

156p 2번 4번 선지 : 질문일뿐더러 -> 질문이 아닐뿐더러

-----

164p 2번 1번 선지 : 한시작 -> 한시적

(평소 관심이 없었기에, '평소 관심 있던'으로 풀어도 됩니다!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읽어서 '희소성의 원리'와 엮으려면 '내부' 개방이 아니라 '한시적' 개방으로 푸는 것이 더욱 필연적이긴 하지만요.)

177p 7번 5번 선지 : 비관 -> 비판

167p 6번 3번 선지 : 3번의 밑줄 -> 2번으로 (2번이 답입니다.)

---

186p 오른쪽 단 : 2. 보고서 발표 대화 -> 보고서 발표 대회

---

201p 우측 3번째 문단 친자연족 -> 친자연적

202p 2번 5번 선지 궁금하지 않으면 -> 궁금하면

207p 7번 1번 선지 따지만 -> 따지면

---

171p 1번 1번 선지 : 1번의 밑줄 -> 4번으로 (4번이 답입니다.)

264p 3번 5번 선지 : 5번의 밑줄 -> 2번으로 (2번이 답입니다.)

267p 6번 2번 선지 : 2번의 밑줄 -> 4번으로 (4번이 답입니다.)